

해외산업시찰 후기

## 일본 산업시찰을 마치고

금호타이어

이 봉 호 안전관리자

국내·외가 빈라덴의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 전쟁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중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예정대로 일본산업시찰은 추진되었다.

최종 산업시찰자로 결정된 인원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추진이 되었다는 것은 안전협회에서 애써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팀웍을 살려 색다른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이번에 우리가 가는 산업시찰 대상국은 안전(산업안전, 교통안전 등)에 대한 인식이 국민 가슴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선진국으로 인지되고 있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 최근에는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로 시끄러웠던 일본이다.

일본의 첫대면은 제1공항인 나리타 공항이었다. 규모면에서 일본이라는 명성에 비해 다소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본의 산업하면 전자와 더불어 자동차 산업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동경에 위치한 도요타자동차 전시관을 참관하였다. 도요타 전시관에 출시된 최신 자동차는 모델도 다양했으며, 전시관을 첨단 놀이문화와 어우러져 상업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상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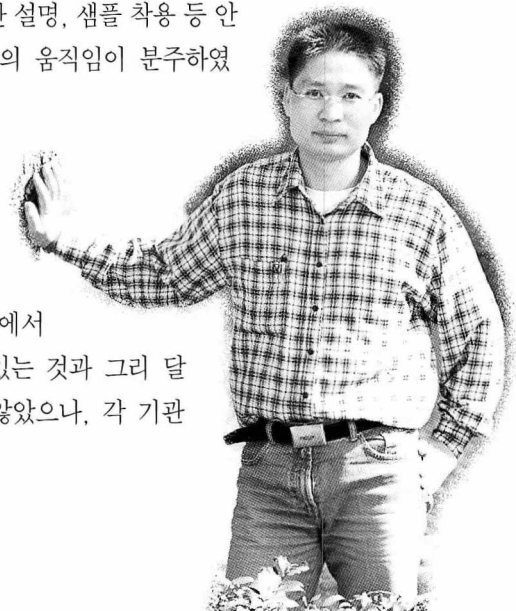
대해 포장을 참으로 잘하는 일본의 상업 문화를 다시금 느끼게 했다.

이렇게 일본 산업시찰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일본에서 산업시찰을 하는 동안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에서 주최하고, 후생노동성에서 후원하는 “일본산업안전위생대회 및 녹십자전”이 개최되고 있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7월에 서울의 COEX에서 산업안전 강조주간에 실시되는 국제안전기기·작업환경개선·소방산업·안전보호구 전시회와 흡사한 행사였다.

일본 뿐만아니라 각국 유명 안전·보건 관련 상품을 총망라하고 있는 이날 행사는 제1, 2전시실에서 80여개의 Booth와 각 기관 및 업체에서 출시한 제품에 대한 설명, 샘플 착용 등 안전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였다.

녹십자전을 참관하는 동안 우리의 COEX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과 그리 달라보이지 않았으나, 각 기관



및 업체에서 설치한 Booth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상품을 체험하는 시스템을 많이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 달랐다. 또한,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등의 상품은 색상과 디자인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멧, 신발 등과 다르지 않아 한번 신어 보고 싶고, 써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

업체에서 대량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보호구는 개인 소장품으로 회사를 옮겨다녀도 개인 보호구를 지참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보호구의 주 구매자는 근로자 개인인 것이다. 그렇다 보니 구매자 개개인의 욕구에 충족하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참으로 부러운 부분이었다.

얼마전 우리 나라 노동부에서는 개인보호구를 개인이 소장하여 관리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 기억이 난다.

또한, 산업시찰 일정 중 하나로 우리 나라의 대한 산업안전협회라 할 수 있는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국제안전위생센터를 방문하여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실제감 넘치는 입체영상을 소개하는 3D상영관에서 영상관람 및 체험자가 컴퓨터 가상의 작업현장 공간내에 들어가 안전패트rollers를 통해 어려운 위험상태를 가상 체험할 수 있는 Virtual reality theater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가상공간에서의 체험자의 행동이 대형스크린에 입체영상으로 비추어져 체험자 이외의 관람자도 체험자와 함께 안전패트rollers를 하는 것과 같은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험관으로, 국내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이었다.

이외 산업안전기술전시관에서는 우리 나라보다 특별하다는 점을 볼 수 없었고, 안전담당자라면 누구나 모두 아는 사실이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이드를 담당해준 중재방 사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자세에서 "알고 있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는 곧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여기서 일본과 우리 나라의 다른 점은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같은 보호구를 지급 받고 같은 안전관리를 받고 있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착용하고, 지키는 성실한 안전문화가 있었고, 우리는 써야 한다. 지켜야 한다. 등 자율적이지 못한 안전문화의 격차가 아직 선진 안전국으로 도약하지 못한 부분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일본의 산업시찰을 통해 이들의 안전문화 더불어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익히 일본의 교통문화는 우리의 TV에서 소개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교통문화에 대해 유심히 살피게 되었는데, 이러한 교통문화가 국민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경에서 3박 4일동안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본적이 거의 없었다. 신호등이 녹색 신호등인데, 아직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던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면, 이들은 기다렸다가 모두 지나간 후에 지나간다. 이는 이들이 준법정신이 철저해서가 아니다. 서두르지 않는 국민성 때문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빨간 신호등 들어 왔어도 사람의 줄이 끊어질 때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횡단하는 이들의 모습과 이들이 다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운전자들의 모습과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서두루지 않고 침착하게 안전수칙을 지켰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끝으로 긴 여정을 끝내며, 좋지 않은 여건속에서도 끝까지 안전협회의 신뢰도를 지켜 이번 산업시찰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준 협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